

파레스 바이오 피드(주)



▲ 파레스 바이오 피드(주) 홍성공장 전경

가축의 건강과 농장의 풍요로움을 지원하는 파레스



▲ 한기성 대표이사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달려간 곳은 충남 홍성에 위치한 파레스 바이오 피드(주). 정문을 들어서면 순간 깨끗하게 잘 정돈된 공장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파레스 바이오 피드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5년 5월 종전의 뉴트라코리아(주) 홍성공장을 인수하면서 부터이다. 그 당시 뉴트라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시장 점유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수하였기 때문에 파레스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작 당시 파레스는 많은 업체들이 수십 년간 기존의 배합사료시장을 분할하여



↑ 더 좋은 사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파레스의 연구진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최첨단 장비로 설계된 중앙제어실

지배하고 있는 무한경쟁 구도에 겁 없이 도전장을 내민 새내기와도 같은 상태였었다. 그러나 파레스 바이오 피드(주)는 불리한 시장상황 속에서도 시작년도부터 흑자를 내며 출발하여 지금까지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파레스의 법인 설립에 도드람양돈조합법인과 영남제분(주)이 합작하여 각각 1대, 2대 지분을 가지고 대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시장과 자본 그리고 경영의 조화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 결과와도 같은 것이라

는 생각이 들었다.

한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영이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기성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다.

“우리 회사는 2005년도에 시작한 사료업체의 후발 주자로서 금년 5월에 이제 겨우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수십 년간이나 기존의 배합사료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도 하에서 우리와 같은 후발업체가 정착하여 안정된 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고의 품질로 정직하게 만들고 공급하여 양축농가들의 이익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라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유혹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회사의 이익이 적게 나더라도 먼저 양축가가 잘되고 안정되어야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도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직 축산농가의 생산 증대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



↑ 지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 화성공장

다. 이것이 기업이 걸어가야 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라고 한 사장은 힘주어 말한다.

파레스 바이오 피드(주)라는 상호 중 「파레스」의 의미는 “가축의 건강과 농장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여신”이라는 뜻이었는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한사장의 양축 농가를 우선 시하는 철학이 회사 명칭에 그대로 반영된 것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고곡물가 시대에서의 사료산업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기성 사장은 단호하게 얘기한다.

“경쟁력이 없는 농가에 대한 사료공급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사료회사도 손해이지만 농가로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료회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어려운 농가들이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생력과 이익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료공장들은 로스를 최대한 줄여서 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비 절감을 위해 해외자원의



↑ 전주공장



↑ 후발주자답게 모든 면에서 철저하다

개발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일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료업체들 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협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레스 바이오 피드(주)는 후발주자이지만 기존의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일찌감치 생산공장의 HACCP인증을 받아 놓았고, 더 좋은 사료를 만들기 위해 전담 연구부서를 설치하여 품질 향상 및 대체 원료의 개발 등 R&D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적정한 판매물량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등 원가절감을 통한 사료가 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이 같은 경영능력과 철학, 그리고 최선

의 노력으로 파레스 바이오 피드(주)는 창업 이후 3년 만에 홍성공장, 전주공장, 화성공장 등 3개의 공장에서 연간 약 1,300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급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파레스는 직원들의 대우나 복지 등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매년 원만하게 임금을 인상 시행하고 있으며, 학자금의 지원(고등학교까지는 전액, 대학교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고, 각종 단합모임과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교육 및 격려를 위해 국내·외 연수를 보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파레스는 타사에 비해 이직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건전한 회사이념과 경영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온 파레스 바이오 피드(주). 파레스가 우리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계속 일으켜 갈 것을 기대해 본다.<吉>

